



스물세번째 이야기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선교지 선교사역 ④ 과테말라 남관우 선교사]

과테말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남관우 선교사님을 ZOOM으로 만났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지리산 뱀사골의 맑은 공기로 힐링하고 계시는데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셨지만, 몸이 벌써 많이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처음 뵈었지만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의 남관우 선교사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사역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사님의 순수한 열정과 지리산의 맑은 바람이 랜선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 덩달아 힐링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BEE : 반갑습니다. 먼저 선교사님과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남관우 : 저는 과테말라에서 의류 관련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고, 가족으로는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은별이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교육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둘째 딸 푸른이는 한국에서 올해 초 바이오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BEE :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남관우 : 스페인어를 전공했는데 근무하던 회사가 남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과테말라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다니던 작은 한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셨습니다. 주일마다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스페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목사님을 따라 다니며 광장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통역하다 보니 신학 용어들을 제대로 통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필요로 현지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과정(Mdiv)을 마치고 미국에 있는 Southwestern 침례 신학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과정을 마친 후에 과테말라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BEE : 10년 넘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통역하시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으셨나요?

남관우 :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고2 때는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과테말라에 가서도,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일들에 순종하면서 대부분의 생활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릴 때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셨네요. 정말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BEE : BEE는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남관우 :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가 없는 것이 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던 신학 교재로 가르쳤는데 현지 학생들의 수준에는 어려운 교재였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애쓰던 중 어느 날 한국에 다녀오신 공자학 선교사님께서 BEE 교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교재를 사용해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박은형 선교사님과 윤현덕 장로님, 신덕희 권사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셔서 BEE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한 5명의 학생과 토요일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3시간씩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의 반응이 기존의 강의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배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4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과테말라와 파나마, 엘살바도르 지역에는 50개가 넘는 그룹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그룹이 많아져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함께함이 너무나 신이 납니다.

BEE :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남관우 : 지금까지 모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회사를 그만두고 관련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몇 년간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비용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비량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주심도 감사합니다. BEE 사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마련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BEE :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남관우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변국들로 국경을 넘는 사역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과테말라 사역에 집중하면서 중남미 지역에 BEE를 열고 인도자들을 세워서 BEE가 정착하여 사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BEE가 중남미 사역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변국들까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BEE 인도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BEE 사역에 더욱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뇨로 인해 체중이 급격하게 많이 줄었는데 당뇨 관리가 잘 되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BEE : 마지막으로 BEE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남관우 : 우선, BEE Korea의 중보기도팀과 기도 모임에서 매주 힘써 기도해주셔서 그 기도의 힘을 사역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며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BEE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 소식도 듣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사역의 어려움도 나누고 노하우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재미있게 해 주셨는데 지면으로 다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9월 29일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가시는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무사히 과테말라에 도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힘차게 사역을 이어가시고, 기쁘고 은혜로운 소식을 계속 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선교지



South Sudan



[일상 생활-북소리]

남수단 서부의 마리디, 암비오 지방에서는 북 소리가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 및 모임 시간을 알린다. 그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기에 교회에서 울리는 이 북소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북소리에는 각 시간의 신호가 있으며, 한번 알리는 북이 울릴 때면 거의 5분 정도 지속해서 북을 두 드린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매일 아침 8:00! BEE 선교사역을 위한 5분 중보 기도!! 깊어가는 가을, 114명의 기도의 용사와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요!!!
3. 10월 30일(토), 양재 BEE 기도모임 5주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양재 BEE가족을 축복합니다!